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요한일서 5:11-13

정윤돈 목사님

서론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징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안다.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안다. 여러분, 주변 교인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지 물어보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다. 사단에 대해서 확실하다. 12가지 문제,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확실하다. 오만 가지 문제가 12가지라는 것을 안다. 문제를 아니까 답도 확실하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원인과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셉 같은 램넛트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성경적 전도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릴 것이 없다. 복음만 정확해도 모든 응답의 문은 다 열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복음편지의 달인이 되시기 바란다. 62가지 삶이 나왔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위탁해서 성도를 세우고 램넛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 로컬과 퍼라의 흐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한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누구보다도 확실하다.

(1)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내 생각이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주일 강단메시지를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할 것을 하나로 붙잡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계속 쌓인다고 해 보자. 어떻게 되겠는가.

(2) 그러면서 틀린 확신을 버려라. 내 틀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성령인도는 무엇인가? 물 흐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위에 흘러가는 일사귀 같은 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대양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3) 확신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겸손으로 위장한 무능이다. 이것도 확신이다. 뭘 하겠다 하는 것도 확신이지만, 나는 못 한다 하는 것은 더 무서운 확신이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묵상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라. 주님의 계획이 맞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보일 것이다.

본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

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다. 여러 가지로 확신이 없다. 우선 무엇보다 안 되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한다.

1.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 즉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1)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한다(요1:12, 계3:20).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정에, 신앙생활에 두니까 흔들린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요1:12) 이것을 모르면 영접하고도 확신이 없다.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 바란다. 말씀이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어려운 공부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식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확신의 근거는 직분도 노력도 열심도 감정도 아니다. 말씀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면 누리게 된다. 증인이 된다. 확신을 가지고 이기게 된다.

(2)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롬8:2, 고전3:16, 12:3). 성령의 역사다. (롬8:26)

(3) 생명(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 ①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구원 이전)의 상태이다.
- ②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한다(요8:44, 행10:38).
- ③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다(마11:28~29).
- ④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된다(마12:25).
- ⑤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된다(엡2:2~3).
- ⑥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된다(행8:4~8).
- ⑦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된다(행16:16~18).
- ⑧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눅16:19~31).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다. 무엇인가? 전도다. 전도는 천국 가면 못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이 지옥보다 힘들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2. 구원받은 자의 축복(祝福)을 몰라서 그렇다.

(1)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다(엡2:1).

- ① 원죄

② 자범죄

③ 조상의 죄

죄에서 해방된다. 세상 어디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는 회개하고 갱신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2)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다(엡 2:2).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문의 문제, 모든 문제에 눌렸던 것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증인이 된다.

(3)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엡2:6). 어디를 가든지 지옥같은 현상이 무너지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1.).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한다(2.). 우리 가정이 지옥같았는데, 예수님이 주인되고 메시지를 붙잡고 다락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 다락방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증거를 보이게 된다(엡 2:7). 이 확실한 언약과 진리와 체험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3. 구원받은 자의 특권(特權)을 몰라서 그렇다. (마16:13~20)

특권을 알면 누림이 된다.

(1) 복음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① 반석같이 만든다(구원).

② 교회를 세운다(전도).

이것을 알면, 전도는 놀리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되어지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2)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현장 가서 다락방하는데 흑암이 확확 꺾이는 것을 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모든 뻘짓이가 체자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게 되기를 바란다.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거듭나게 되어 있다(고후5:17).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뒤집어진다. 새로워진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①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벧전5:8, 약4:7).

②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눅18:5).

(3)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①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잠16:4).

② 열쇠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받기를 바란다. 올 인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다. 연약하고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한다.

4.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이것이 참 쉬운 것이다.

(1)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보자. 불신자들은 자기가 노력해야 한다. 힘쓰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쟁하고 누르고 그래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뀐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방법을 불신자처럼 쓰면 이중으로 맞는다. 요셉처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인본주의를 못 쓰는 것이다.

(2)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요14:26~27). 성도는 불신자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다. 성령인도는 완벽하다.

① 염려를 버려야 한다(벧전5:7).

②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갈2:20).

③ 숨은 계산은 버려야 한다. 승리 후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행5:1~10).

(3)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후5:17).

②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한다(행16:13, 16).

③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여야 한다(행1:8).

말씀의 흐름에 순종하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포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

결론

(1) 다섯 가지 확신이다.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

(2) 62가지에 대한 포럼이다. 삶이라고 했을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포럼이라고 하니까 와닿더라. 서로 대화가 되어야 한다. 서로 나누어야 한다.

①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붙잡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②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9가지 포인트다.

③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영적 서밋 일곱 가지다. 나와 나 자신과 후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유대인처럼 토라, 탈무드, 세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것을 두고 가야 한다. 회당 대신, 로지 대신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가야 한다. 우리의 모델은 세상 위인이 아니다. 램네타다.

④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와 집중이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해야 한다.

⑤ 나는 어떤 열매를 남겨야 하는가? 이것이 다섯 가지 기도다. 구원에 감격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나를 치유하고 집중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어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균형을 찾게 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전문인이 되게 해야 한다. 이 62가지 포럼에도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